“100일 기도 공덕 사회에 나누길”

무등산 원효사, 100일 기도 회향 기념법회

광주의 대표적 전통도량 무등산 원효사가 신임주지의 취임과 함께 1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원효사(주지 해중)는 2월 26일 대웅전에서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일 신중기도’ 회향을 맞아 법회를 봉행하고, 신임주지 취임 인사의 말을 전했다.


원효사 100일 기도 회향법회서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이날 100일 기도를 회향한 신임주지 해중 스님은 주지 취임 후 바로 100일간 신도들과의 기도를 봉행해 첫 대중법회와 기도회향을 맞았다.

해중 스님은 신도들과의 인사를 통해 “백일기도를 맞아 은사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회향하게 돼 감사하다”며 “그동안 100일 신중기도가 신도들의 많은 협조를 통해 원만히 회향됐다. 앞으로 원효사가 예전의 모습을 빨리 회복해 참수행 도량을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묵 스님은 기념법문을 통해 “100일 신중기도 회향을 축하하며, 이번 기도는 같이 공덕을 나누는 회향”이라며 “신임주지와 함께 많은 수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도량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지역법회로 포교활성화 나서

장성 · 담양 · 영암 등 정기 사찰순례 및 지역행사 참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가 광주 · 장성 등 지역법회를 열고 신도조직 활성화에 나선다.

백양사는 2월 22일 장성군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장성 지역법회(지도법사 일묵)를 봉행하고, 장성지역 불교신도들의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장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법회에는 지역불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불교 활성화를 다짐했다.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은 법어을 통해 “어느 때보다 지혜를 밝히는 자기 수행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지역법회지만 꼭 참석해 마음부처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초대 장성지역법회장으로 선출된 서희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성읍내에 살면서 불자들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며 “불자들이 모여 함께 정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자”고 말했다.

백양사 포교국장 혜오 스님은 지역법회 결성에 대해 “지역 여건상 절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법회를 신설했다”며 “매월 정기적인 사찰순례와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법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법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며, 향후 담양 · 영암 · 나주 · 함평 등 백양사 인근 읍면지역과 대도시인 광주의 각 구별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결성해 나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지역 불교종립학교 입학식

정광 · 세지중학교 3월 2일 2017년도 신입생 맞아

광주전남지역 불교종립학교가 잇따라 입학식을 갖고 신입생을 맞이했다.

학교법인 정광중학교(이사장 원일)는 3월 2일 룸비니관에서 2017년도 입학식을 열고 총 193명(남 101, 여 92)의 신입생을 맞았다.

이사장 원일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벽상학원 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도 같은 날 나주, 세지지역 거주 학생 36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한편 세지중학교는 농어촌지역 특별교육과정으로 자율학교, 예절, 다도 체험학습, 전교과 독서 및 토론수업, 동아리 활동, 테마체험 및 봉사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1인 1악기 연주와 토요관현악, 원어민활용 영어회화 등 다양한 학습을 제공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자비행, 지역사회 맑힌다

빛고을나눔나무 2017년 사업계획 확정

지역불교 최초의 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가 2017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 세심정사 주지)는 2월 2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7년 주요사업과 2017빛고을관등회 봉축공모사업 심사를 진행해 올해 공모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2017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사회를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신설을 통해 스님과 재가 불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상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행자를 위한 지원사업, 빛고을관등회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네팔 자전거 지원, 불교뱅크(불교나눔센터), 불교학술세미나 등의 주요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규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후원회원 확보 등이 안건으로 결의됐다.

특히 지역불교 최초로 불교공모사업을 4년간 진행하고 있는 ‘빛고을관등회 봉축공모사업’은 올해 광주지역 11개의 불교단체에 총 17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지원한다.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업들을 심사해 4~5월 2개월 동안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상임이사 보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축공모는 사찰뿐만 아니라 불교단체도 봉축행사를 함께 봉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이사회 확대 · 재가자 참여 독려

상 · 하반기 나눠 공모사업 진행

총 11개 단체에 1750만원 지원

“사회에 봉축 의미 알리는 계기”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에 봉축의 의미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사업으로 주목받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행자 지원사업’은 대중공양 형식으로 진행된다. 노년에 열악한 수행환경에 처한 스님들에게 전통 공양방법인 대중공양을 올리는 방식으로 생필품과 수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을 올곧은 출가수행자로서 위의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지역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공모사업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원사 영유아수계법회.

하반기 사업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네팔 룸비니지역 초등학교 자전거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모금을 통해 올해에도 100대(1000만원 상당)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불교학술세미나는 최근 불교계 신도수 감소와 더불어 도심의 중소사찰과 시골의 작은 사찰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린 토론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를 담는다.

연중사업으로 진행되는 불교뱅크(불교나눔센터)는 쌀과 연탄 등 신도들이 마련한 물품을 기부 받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쌀 5000kg과 연탄 2만장을 불교단체와 복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성 스님 독립정신, 후학 가슴속에…”

장수 죽림정사 3.1운동 98주년 기념법회 봉행

일제에 항거하며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을 알리고,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며 온 국민이 조국의 독립을 외친 3.1만세운동.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3.1운동의 98주년 기념법회가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가한 백용성 조사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됐다.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는 3월 1일 용성교육관에서 방송인 김병조 씨의 사회로 3.1만세운동 9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민족대표 33인에 헌화 △3.1절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삼일절 노래 제창 △환영사 △기념축사 △기념법문 △신독립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유수 스님, 한영희 장수부군수, 민족대표 유가족과 정토회원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조선의 독립을 선포한 3.1만세운동 정신을 기렸다.

법륜 스님은 환영사서 “용성 진종조사는 3.1운동을 통해 대한제국의 부흥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수립을 이끌었다”며 “선열의 숭고한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 민족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나 함께 공생공존하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용성 스님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확인했다.

용성 스님은 한국 근대불교 기반을 닦은 선지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대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도심으로 내려오게 해 생활불교, 바른 불교의 기풍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독립케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평화명상 걷기 순례단 발족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끊임없는 자아를 탐구하는 평화명상 걷기 순례단이 전주서 발족한다.

평화명상 걷기순례단(단장 김기운)은 2월 25일 전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평화걷기명상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50여 명의 불자와 시민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권기욱 호원대 교수를 초청해 걷기명상 방법과 효과, 올바른 걷기 자세, 교정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평화명상 걷기순례단은 오는 3월 25일 김제 금산사에서 정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순례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번에 발족하는 평화명상 걷기순례단은 전주시 인근의 사찰과 일반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 등을 연계한 장소에서 2시간정도씩 걷기명상 수행을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1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1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오래된 폐질환, 아토피, 피부병 상담


약사불(藥師佛)
약사불은 질병을 고쳐주고 재난에서 구해주며 음식과 옷을 주는 부처로 왼손에는 약단지를 들고 있다.

대대로 세속 되어진 업과
상속 되어진 업,
음양의 부조화로
병마로부터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인간의 육체는 무상한 것이어서 의식하지 않아야 하나 중생들이 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겁을 지나면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오직 부처님 만이 좋은 의사가 되어 법의 약을 주시니 이 법을 받들어 정성껏 행하는 이는 병마를 이길 수 있다.

– 오문 선경 요용법 – 중에서

만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 와서 행복한 삶을....

천태산 월광사

충남 공주시 의당면 비게실길 45 / 전화 010-4573-0940 사무장 올림